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8일 (음력 12월 23일) 목요일

국방부, 38년만에 5·18 계엄군 헬기사격 인정



이건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80년 5.18 당시 육군 공군헬기인 500MD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38년만에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개월 간 조사한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육군은 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점, 실제 사격 명령이 이뤄진 점, 무장 헬기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 진술,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들었다.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상무충정 작전에 참여한 육군 병력 등과 협동작전으로 공중에서 시민 상대 헬기 사격을 한 것

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라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1980년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고,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계엄군은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군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에는 "상공을 비행·정찰해 버스·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병화·사격하는 집단을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사격 명령·증언, 헬기 작전 계획 지침 등이 헬기 사격 근거 전투기·공격기 폭탄장착 대기했지만 폭격 검토 확인 못해

에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연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연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하천·입야·산 등을 선정해 위력 시위 사격을 실시하라" "시위 사격은 20mm 발칸 실 사격은 7.62mm가 적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계엄사령부는 '헬기 사격 실시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할 것'을 지시했다.

'발칸 위협사격 실시로 양민 경고 분리 및 위압감·공포감 효과를 달성하라'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에게는 집중사격 하라'는 구체적인 경고문(방송) 내용도 밝혀졌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4회에 걸쳐 '무장헬기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입작전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명령도 있었다.

이밖에 5월 22일 '조선대 절개지와 광주천에 헬기로 위협사격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날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었다'고 증언했다.

5월 23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은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김기석 부사령관 등에게 '왜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를 동원해 빨리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고 질책한 뒤 사격명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4일에는 11공수여단장이 83세대 병

력이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을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오인,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 헬기로 무차별 사격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5월 21일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비무장 시민에게 직접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두고 '비인도·아만·잔학·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 27일에는 계엄군 특공대의 전남도청 진입과 시민군 제압을 위해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18 당시 헬기조종사 5명은 특조위 조사에서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지만,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와 관련, 특조위는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입작전계획으로 검토됐는지 여부"의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특조위는 5·18당시 수월 공군 제10전투비행대에서 F-5에 MK-82 폭탄이, 사천 제3훈련비행대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자료와 공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5·18과 관련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가 없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해 5·18 관련 중요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 필름(MF)으로 전환하면서 보존 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자료가 폐기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5·18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입은 '육군과 공군, 해군(해병대)의 3군 합동작전이었다'고 규명했으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헬기 사격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한 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의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미래'의 '미래당' 약칭 신청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명칭은 약칭, 정식명칭이 다 포함돼 '우리미래'의 '미래당'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한 만큼 다른 정당이 정식 명칭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이용규 기자

설 연휴 전남 서·남해 귀성객 뺏길 17일 가장 혼잡

목포해수청, 여객선 4척 추가 투입...운항횟수 518회 증가

설(2월16일) 연휴기간에 전남 서남해 도서지역을 왕래하는 귀성객 뺏길은 설 다음날인 17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기간 여객선 터미널과 주요 기항지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귀성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수송대책(14~18일까지)을 마련해 시

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등 섬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설 다음날인 17일 여객 3만8000여 명과 차량 7000여 대가 섬을 오가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36개 항로에 여객선 4척을 추가로 투입, 총 61척의 여객선이 평

상보다 518회 증가한 2418회를 운항할 계획이다.

또 귀성객으로 인해 늘어난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배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전에 승선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함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